

광주시, 수장고 포화상태... 작품공간 등 체계적 관리 '박차'

문화중심도시 사업 확대 될수록 수장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 건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하기관 수장품의 수장공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수장고 현황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작품 5587점을 보유하고 있어 수장고 포화율이 95%에 달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도 424㎡ 규모의 수장고에 1만8012점을 보유, 전체의 97%가 차지하는 상태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보유 작품이 6만7985점으로 수장고 포화율이 98%다. 김치박물관은 793점을 보유, 80%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 모두 개별시설의 수장고 부족으로 공간활용과 수장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감도_통합수장고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장품 증가량이 연평균 8200점에 달하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확대 될수록 수장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70년에는 이들 기관의 수장품이 52만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기관들의 수장품 보관에

다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자원의 전시·체험·연구를 아우르는 지역특화 시설 건립으로 호남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전달할 전문수행기관으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했다.

전문수행기관은 오는 10월까지 ▲

산하기관 수장품 전수 분석, 재질별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부지 공모 절차 수행 ▲건립규모 산정 및 건축 기본구상 등을 연구한다.

광주시는 전문수행기관의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전 타당성을 분석해 투자심사 의뢰,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시설물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는 소장품의 재질, 종류, 특성에 맞춰 전문수장고를 증설하고, 소장품의 효율적 관리와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존처리과학실을 조성한다. 더불어 관련 분야 연구자와 시민의 유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공간을 구현한다.

광주시는 위탁받은 유물의 보존처리·복원·수리 등 지원 체계가 완성되면 종가를 비롯한 사택에 보존된 유물 기탁이 용이해져 호남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행복도시 김해 스탬프 투어' 운영

김해시가 오는 29일부터 테마 및 운영 방식 등을 개편한 '행복도시 김해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기존 스탬프 투어의 주제였던 '가야왕도 김해'를 '행복도시 김해'로 변경하고, 김해시 브랜드 슬로건 "Don't worry, Gimhae'ppy" 및 캐릭터 토더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스탬프투어를 준비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스탬프 투어 주제 및 운영방식 변경 ▲신규 인증 관광지 추가 ▲기념품 증정 조건 및 종류 변경 등이 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파크골프장 조성 '본격화'

울산시는 '골렘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강동관광단지과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에 본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강동관광단지 파크골프장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산지형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3월 중으로 강동관광단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실시계획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클럽하우스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개 분야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울릉군

세계 물의 날, 물 절약 캠페인

울릉군은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물 절약 실천 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물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다짐 서약'을 받음과 동시에 물 절약을 위한 '거꾸로 양치컵'도 함께 배부했다.

일상속에서 물절약을 위해 절수형 수도꼭지·변기 및 샤워헤드 사용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물 절약 방법을 안내했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완도군

"청산도 걸으며 힐링하세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으며'라는 주제로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산안보 스탬프 투어 ▲범바위 기(氣) 치유 ▲청산도 이색 걷기 대회(슬로우 켈러 러) 등이다.

군에서는 4월 한 달간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고, '청산해양치유공원'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대구시, 전국 1호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업 세제감면 등 패키지 지원 제도 수성 알파시티 중심으로 1차 신청 면적 83만평, 투자규모 4조 정도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4일 열린 대구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동부권의 수성알파시티 국가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서남부권 모빌리티·로봇 중심의 산업 재편' 약속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세제감면·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24.3.4.)를 통해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지방에서 준비되는 대로 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대구지방시대위원회 열고 '대구시 기회발전특구 기

본계획'을 심의해 지난 22일 전국 제1호로 특구를 신청했다.

대구광역시는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자, 수성알파시티(디지털)와 국가산단·금호위터폴리스(첨단제조) 중심으로 1차 특구를 신청한다. 광역시는 총 150만 평 범위 내에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신청 면적은 총 273만4000㎡(83만 평), 투자 규모는 4조원 정도이다.

주요 투자기업은 AI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인 SK리츠운용(주)·SK(주) C&C 컨소시엄을 비롯한 6개 기업이며, 총 투자 규모는 1조 396억원 정도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4355명, 재정 투입에 따른 취업유발은 2454명 정도로 예상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대상지 9개구 선정

부산진구 등에 예산 1.5억 투입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진행한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사업' 공모 심사 결과, 올해 사업 대상지로 9개 구를 선정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9개 구는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이다.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로, 2021~2022년 연구를 거쳐 시범 사례 적용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4개 구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역 맞춤형 양육 친화 환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함평군,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 완료

돌머리 하우스캠핑장 첫 개방

전남 함평군이 돌머리 해수욕장 귀어귀촌빌리지를 '하우스캠핑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첫 민간 개방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등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을 완료,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돌머리 해수욕장 '하우스캠핑장'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8개 주요사업 중 하나로, 10평형 숙박시설 8개 동으로 이루어져 20일부터 함평을 찾는 관광객을 받고 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은 2023년 9월 5일 전라남도과 공동 발표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세 개의



돌머리 해수욕장 '하우스캠핑장'은 '돌머리 지구 어촌뉴딜300사업' 8개 주요사업 중 하나로, 20일부터 함평을 찾는 관광객을 받고 있다.

/함평군

기축 중 하나인 '해양생태축'에 해당하는 세부 추진사업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 해양생태축의 큰 줄기인 돌머리지구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울주군, '해뜨미 바로 콜센터' 개소 1주년

단순 민원, 상담원 직접 안내

울산 울주군의 민원 해결사로 활약 중인 '해뜨미 바로 콜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하면서 행정과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3일 개소한 해뜨미 바로 콜센터는 군정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ONE-CALL, ONE-STOP' 방식으로 운영된다.

콜센터 운영 이전에는 민원 연결 도중 전화가 끊어지거나 정확한 업무 담당자 안내가 힘들어 불필요한 전화 돌림이 많았다.

울주군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해뜨미바로 콜센터를 개소해 ▲여권 발급 관련 안내 ▲각종 제증명 발급 안내 ▲울주군 축제·행사 등 단순 민원을 상담원이 직접 안내한다.

민원인이 담당자 연결을 원할 경우 상담 직원이 먼저 담당자 확인 후 직접 민원을 안내하고 전화를 연결해 민원 과정에서의 불편을 대폭 줄였다. 또 1회 이상 민원 상담을 제공한 민원인의 이력은 DB로 구축돼 연속성 있는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콜센터 개소 이후 1년간 상담 건수는 총 7만 6450건으로 집계됐으며, 4명의 상담원이 97.4%의 높은 응대율로 하루 평균 317건 이상의 민원 상담을 처리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